#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유음계열 종성의 지각과 조음

## - 관용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의 음장 비교 실험 -

권 현 주*

〈차 례〉

Ⅰ. 시작하는 말
Ⅱ. 발음 학습에서의 발음 표기 역할
Ⅲ. 교육용 가나표기를 이용한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발음 효과
Ⅳ. 관용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의 비교 실험
1. 표기법에 따른 발화 길이 비교
2. 표기법에 따른 발화 상태 비교
Ⅴ. 맺는 말

## Ⅰ. 시작하는 말

일본어 모어 화자는 한국어의 어휘나 문법 표현력의 학습 속도는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들보다 뛰어나다. 반면 한국어의 발음은 장기간 학습을 하고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의사소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적지 않다. 외국어 학습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있다면

* 전북대학교 일어일문과 강사

실제 의사소통의 일차적인 수단이 되는 음성언어에 대한 교육은 필수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이와 같은 음성 교육에 대한 설명이나 표시가 자세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한국어를 습득해도 부자연스러운 발음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음성 교육 시 설명이 필요한 운율소 중에서 특히 음장(length)은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일본어 모어 화자의 발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한국어 종성(coda) 발음에는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어에는 대부분의 모음과 소수의 자음에 음장이 운율소로서 존재하나 비변별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음장은 모음에는 음소로서 종성에는 박(拍)으로 존재하며 변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소고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 중, 종성에서 박으로 존재하는 일본어와 박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의 종성 에 대한 음장 차이를 발음 표기 방안으로 해결해보고자 시도하였다.

본문Ⅱ에서는 일본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종성 발음을 지각하고 조음할 때의 발음 표기 의존도 여부를 관찰하여 발음 표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Ⅲ에서는 종성에서 박으로 존재하는 일본어와 박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의 음장 차이를 기존의 발음 표기 방안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한국어 종성 발음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용 가나(kana)표기를 제시하였다. Ⅳ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용 가나표기 형태와 기존에 사용되던 관용표기 형태의 도움을 받아 발화된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의 음장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Ⅱ. 발음 학습에서의 발음 표기 역할

한국에서 발행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는 발음 표기가 되어 있는 책이 거의 없다.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한국어 단어나 문장의 옆 또는 아래에 가타카나(片假名)로[1] 발음을 표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발음 표기법」규정집을 보면[2] 외래어 및 특수한 경우에는 발음 표기를 부기(附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중,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발음 표기 수단으로는 주로 가타카나가 사용된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발음 표기 기호로는 국제음성기호(IPA), 로마자표기, 가타카나가 있다. 이 세 발음 표기 가운데 IPA와 로마자표기는 가타카나표기보다 발음에 좀 더 근접한 표기이기는 하지만, 이들 기호가 오히려 더 어렵고 난해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IPA나 로마자표기보다는 접근성이 수월한 가타카나(片假名) 표기가 학습 교재에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1) 외래어나 외국어 발음을 가타카나((片假名)로 표기하는 것을 가나표기(カナ表記)라고 하며, 이중 외국어 발음 표기는 일명 루비가키(ルビ付活字)라고도 한다. 본고에 사용된 가타카나 표기는 모두 외국어 발음표기로서의 가나표기이다.

2) 文化廳(1991), 「外來語」, 『ことば シリーズ4』, 大藏省印刷局, 83～90면. 외국어 가나표기의 방법에는 일반적인 문자 표기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표기 위주의 전자법(轉字法)과 음소 표기 위주의 전사법(轉寫法)이 있다. 외국어를 처음으로 가타카나 표기하기 시작한 1902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전자법(轉字法)과 전사법(轉寫法) 사이에서 변동을 보였다. 현재 외국어 가나표기법은 1991년의 외래어 표기법과 함께 전사법(轉寫法)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겨울연가'와 같은 TV 드라마 대본을 이용한 한국어 학습 교재는 말할 것도 없고, NHK 교육 방송 교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어 학습 교재에 사용된 단어와 문장의 옆과 아래에는 발음 표기가 부기(附記)되어 있다. 심지어 대학 교재에도 발음 표기가 부기(附記)되어 있다.

위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학습 교재의 발음 표기 부기 현상과 가나표기 실태 조사를 하였다. 일본 방송 출판협회가 발행한『NHK텔레비전 안녕하십니까? 한글 강좌』교재 70권(1996～2007)과[3] 『NHK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한글 강좌』교재 69권(1992～2007),[4] 총 139권의 자료를 통하여 살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V의 경우 발음 표기의 부기 비율은(K)교재 70%와 (K・P)교재 21.4%를 합쳐서 조사한 자료의 91.4%나 차지한다.[5] 이에 비해서 발음 표기가 없는 교재는 8.6%에 불과하다. 라디오의 경우에는 발음 표기가 없는 교재(∅)가 27권(39.1%)로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었으나, (K)교재 24.6%, (P)교재 7.3%, (K・P)교재 29%의 비율을 합치면 발음 표기가 있는 교재가 약 60.9%나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발음 표기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타카나 표기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불고기'에 대한 발음표기를 살펴보면「ブルゴギ」「ブルゴギ」「ブルゴギ」 등의

3) NHKテレビハングル講座教材(1996～2007):1996(1권), 1997(12권), 1998(12권), 1999(12권), 2000(5권), 2002(2권), 2003(1권), 2004(3권), 2005(10권), 2006(4권), 2007(8권).

4) NHKテレビハングル講座教材(1996～2007):1996(1권), 1997(12권), 1998(12권), 1999(12권), 2000(5권), 2002(2권), 2003(1권), 2004(3권), 2005(10권), 2006(4권), 2007(8권).

5) 기호 형태: 가나표기=K, IPA=P, 두 표기가 병기된 경우=K・P, 발음 표기가 없는 경우=∅

사례를 볼 수 있다. 원음위주 표기와 관용표기가 공존하는 가운데[6] 한국어 학습 교재 저자들의 주관적인 견해로 사용되는 표기법들이 혼용되면서 한국어 발음 표기에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나표기의 실태 조사와 기존의 가나표기를 이용했을 때 폐쇄음 계열의 세 한국어 종성 음소에 대한 일본어 모어 화자의 지각과 조음 관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서 한국어 종성 발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용 가나(kana)표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형태의 가타카나 표기가 부기된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에 대한 일본어 모어 화자의 지각과 조음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표 1> 한국어 종성 음소 /l/의 관용표기[7]

| /pulkoki/(燒肉) | |
|---|---|
| 3음절 4박 | 3음절 3박 |
| 「ブルゴギ」 | 「불고기」 |

<표 1>은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에 이용된 기존의 발음 표기 형태이다. 제시된 <표 1>의「ル」표기는 한・일어 비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은 평범한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종성 음소라는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어 음운체계에 는 /l/ 이나 /r/ 계열의 종성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어에도 /r/로 표기되는 탄설음이 존재하지만, 음절 첫머리에만 오고, 종성에는 이 음소가 존

6) 김경호(2004),「일본어에 나타나는 외래어 이중가나표기의 문제점」, 한국일본어문학회 제23집, 6면에서 재인용(1902년(明治35)에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外國地名人名称呼一覽』에 나타난다).

7) 김경호(2004), 전게서 3면의 표현을 사용함.

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음절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한국어 종성 음소 /l/의 관용표기 형태는 일본어에서 초성에 사용되는 /r/ 계열의 음절을 차용하여 사용한 경우이다. 따라서 위의 표기 형태로는 개음절을 지향하는 모어의 음운 구조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간섭현상을 미리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한국어 종성 음소 /l/에 사용된 연도별 가나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종성 음소인 /l/의 경우, 일본어 음운체계에서는 종성에 이 음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초성에는 존재하므로 1991년 이전의 관용표기에서는 어두나 어중에 존재하는 /l/의 음소를 차용하여 「ル」로 표기하고 있었다.

<표 2> 한국어 종성 음소 /l/의 연도별 가나표기[8)]

| 연도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4 | 2005 | 2006 | 2007 |
|---|---|---|---|---|---|---|---|---|---|
| l | A | 소ル | 소ル | 대ル<br>소ル | 소ル | 소ル | 소ル | | 대ル |
| | B | | 소ル | 대ル<br>소ル | 소ル | 소ル | 소ル | 대ル | ℓ |

대응되는 일본어가 없는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은 1991년 이전의 관용표기에서 큰 「ル」로 가나표기를 했지만, 원음위주표기도 가능해지자, 작은 「ル」 형태를 보이면서 한국어의 음절말자음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그동안 한국어 종성 음소 /l/의 가나표기는 대 「ル」, 소 「ル」, 「ℓ」 등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이전의 관용표기에서

8) A-텔레비전의 연도별 가나표기, B-라디오의 연도별 가나표기.

는 어두나 어중에 사용하는 /l/의 가나표기 형태 그대로를 종성에 사용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으나, 조사를 시작한 1992년 자료에서는 이미 소「ㇽ」표기가 대「ル」표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원음위주의 표기가 병행된 1991년 이후 빠른 정착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이로써 고질적인 간섭현상을 보이던 한국어 종성 발음 향상에 많은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새롭게 당면한 문제는 원음위주표기법이 적용된 이후, 17~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902년부터 사용되었던 관용표기가 공존하는 것이다. 관용표기법과[9] 한국어 학습서 저자들의 견해로 사용되는 다양한 원음위주 표기가 공존하는 현재의 가나표기 형태를 한국어 종성 발음 학습에 이용하였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용례1) 그날 밤[グナルパム], 지난날[ジナンナル] (鄭 46)
(용례2) 멀리[モウリ] (鄭 46)
(용례3) 달[タル], 꿀[クル] (菅野 30)

(용례1)의 [グナルパム]과 [ジナンナル] 등에서 볼 수 있듯이 /l/에 대한 작은「ㇽ」표기가 이미 1980년도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용례2)의 [モウリ]를 살펴보면 앞 음절의 종성을 표현한 형태로 적합하지 않다. (용례3)에서는 다시 대「ル」표기가 보인다.

(용례4) 갈비[カルビ], 돌담[トールダム], 딸기[タールギ], 솔질[ソールジル], 달력[タルリョク], 물리[ムルリ] (菅野 32, 33)

9) NHK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제목을 'ハングル講座' 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ハングル'로 발음표기를 하여 '한글'을 설명하고 있다.

간노(菅野裕之)는 용례(4)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종성 중 유성음 /l/과 평음, 유성음 /m/ /n/ /ŋ/ 과 평음 설명 시, 뒤에 오는 평음도 유성화 된다고 설명하면서 가나표기는 위의 예에서와 같이 관용표기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음 표기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용례5) 산골[サンコル], 진달래[チンダルレ]

(용례5)에 부기된 가나표기를 살펴보면 음절말자음이 연철되지 않음에도 연철로 이어져 있다. 교재에 부기된 가나표기대로 발현하면 산골은 '상코루'[サンコル]로, 진달래는 '진다루래'[チンダルレ]로 발현되기 쉽다. 초성 /r/의 음성적 특징은 일본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종성 음소를 학습할 때 응용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음가의 본질이 다른 한국어 종성 음소에 대한 간섭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10]

현재 한국어 학습서에 부기되어 있는 가나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소 표기에 대한 동일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일정한 규칙이 없는 가운데 현상에 따라 즉흥적인 가나표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단어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나표기가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초급단계의 일본어권 학습자에게 이러한 발음 표기를 제시한다면 학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발음학습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에 대한 기존의 가나표기 형태는 종성인지 후속음절의 초성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

가나표기는 오랫동안 일본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종성 발음을 학습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가나표기가 일관된

10) 졸저(2008) 7~22면. 「NHK 한국어 강좌 교재의 발음표기에 대한 실태 분석 -종성 발음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원칙 아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어의 종성 발음을 인식하는데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지금처럼 일관성이 없는 표기 형태는 한국어 종성 발음 학습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언어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오류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교육용 가나표기가 필요하다.

## Ⅲ. 교육용 가나표기를 이용한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발음 효과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를 관용표기 형태 「ル」로 제시하면 일본어 모어 화자는 초성 음소로 지각하기 쉽다. 이렇게 지각된 한국어 종성 음소 /l/는 개음절을 지향하는 성향을 지닌 일본어의 모어 조음 습관 때문에 1음절의 장음절 단어를 2음절의 단음절로 조음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간섭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용 가나표기를 이용하여 한국어 종성 음소 /l/에 대한 발음 표기를 작은 「ル」형태로 표기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종성 발음은 음운변화를 일으키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에 영향을 주어 발음이 완성된다고 설명하면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 발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설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어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장에 대한 간섭현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를 /l/ → 「ル」로 제시할 때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여 앞 음절에 부속되는 종성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둘째, 발음 표기와 연계한 접근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즉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와 이에 대응되는 일본어 /r/을 조음 위치(place of articulation)로 구분한 뒤에 조음 방식(manner of articulation)으로 양 언어의 발음 차이를 비교해주는 조음 방법을 이용한다.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은 자음 앞이라도 혀끝을 확실히 위 잇몸 뒤에 붙여야 한다. 혀끝을 그대로 입천장에 붙여도 좋고, 혀끝을 약간 위로 말아서 붙여도 된다. 혀끝을 확실하게 해당 부위에 부착시켜 정지된 상태에서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주의 할 것은 [l] 발음 시에는 혀끝을 위 잇몸 뒤에 댄 채로 발음을 한 뒤, 떼지 말고 후속 발음을 이어서 하는 것이다. 이미 종성 발음을 접촉한 상태에서 [ɾ] 음을 발음하기 위한 조음 운동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하세가와(長谷川由紀子、1997: pp.161～180)는 일본어에 /r/이 받침에 없기 때문에, 받침의 한 구성 요소로서 오는 한국어의 종성 /l/에 대해서 인지와 조음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일본어는 음성 층위(phonetic level)[11]에서 많은 변이음들을 갖고 있어서 한국어의 종성음소 /l/, /r/을 인지하거나 조음하는 측면에서 비교적 큰 간섭현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제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를 발음할 때 일본어 모어 화자는 한국어 종성 음소 [l]을 외파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생기고 있다. 한국어의 종성 음소 /l/은 종성에서는 설측

11) 박경자 외(1994) 292면에서 재인용, Tsuzuki(1992)에 따르면, 일본어의 유음은 가볍게 혀가 말리는 설측음(a slightly retroflexed lateral approximant)으로부터 치조탄설음(an alveolar fla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이음들을 가진다. 하지만 그 변화가 무의식적이어서 일본인들은 대표음으로서 유음 /r/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음화되면서 모든 자음과의 연결이 가능하고 그 발음도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는 설측음의 조음방법을 지도함으로써 개음절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예) 말[mal], 딸기[t'algi], 겨울[kjʌ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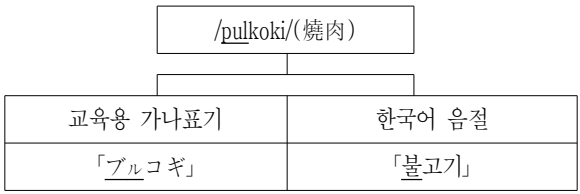
후속하는 연결음에서도 /-l/ 발음 체계가 없기 때문에 /-ㄹㄹ-/가 겹쳐서 발음해야 할 경우에도 혀끝이 치조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음임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앞의 「ㄹ」은 혀끝이 닿을 때 나고, 뒤의 「ㄹ」은 떨어질 때 소리가 나므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야 한다.

예) 얼른[ʌllɯn], 벌레[pʌlle], 달력[taɭɭjʌkˀ]

한국어 종성 음소를 구체적인 음성으로 실현시킬 때 모어의 간섭현상으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지각단계에서는 발음 표기를 제시한 뒤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의 조음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일본어 모어 화자의 경우 개음절화하여 입술을 벌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어 종성 음소를 발음한 후에는 반드시 입술을 닫은 채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입술은 다물고 있다가, 뒤 음소를 발음하기 위해서 열 때, 파열시키지 않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양손을 이용하여 입모양을 크게 동작하여 보여줄 필요도 있다. 곧이어 일치발화술을 이용하여 제대로 인지했는지 여부를 발음을 통해 직접 확인한다. 종성 단독으로는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 연습을 할 때에는 발음하기 쉬운 모음을 붙여서 해야 한다.[12)]

아래 <표 3>에서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에 부기할 교육용 가나표기 형태로 작은「ル」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표 3>의 방법은 앞 음소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받침 역할을 한다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음 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 /l/은 음절말에서 조음 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발음 연습을 할 때도 입 모양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표 3> 한국어 종성 음소 /l/의 교육용 가나표기




## Ⅳ. 관용 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의 비교 실험

이 실험의 목표는 본문 Ⅲ의 가나표기를 이용한 발음 학습이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실제 종성 발화에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기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우메다(梅田博之, 1985)[13]와 이재강(1999)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

12) 졸고(2008) 11면.「NHK 한국어 강좌 교재의 발음표기에 대한 실태 분석 -종성 발음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 우메다(梅田博之, 1985) 48~58면. 한국어의 상(床)과 일본어의 三(saN)의 발화 길이를 비교하였다. 한국어 상(床)은 /ㅅ/과 /ㅇ/이 주모음 /ㅏ/를 중심

국어와 일본어의 장음절 길이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우메다는 음절 초에서의 /s/에 대한 발화 길이를 연구하였고, 이재강은 일본어 촉음(촉음)과 발음(발음)의 지속 시간에 대한 연구였다. 우메다는 일본어의 음절 초 /s/의 발화 길이 연구로 후속 모음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일본어 모어 화자(0.12～0.18초)가 한국어 모어 화자(0.25～0.32초)에 비해 초성 /s/의 지속시간이 확실히 짧다는 결론을 내렸다.[14] 반면에 이재강(1999)은 일본어 촉음과 발음에 대한 일본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지속 시간에 대한 연구로 겹자음의 발화에서 원래 발화 길이보다 일본어 모어 화자는 2배, 한국인은 1.5배의 지속 시간이 걸렸다는 연구이다.

위의 두 연구 결론을 통해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한국어 발음을 지도 시, 유의점을 파악하면 초성을 지도할 때는 발화를 길게 유지하도록 시키고, 종성을 발음할 때는 너무 길게 발음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연구의 결과는 각각 초성과 종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지도에 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한국어 발화 길이나 종성 발음 지속 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관용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가 부기된 폐쇄음계열의 세 한국어 종성 음소의 발화시 음장 비교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하여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Ⅳ.1에서는 4가지 가설 아래에서 음성 분석기를 통한 비교 실험을 하였다. 우선 관용표기가 부기된 한국어 단어를 읽을 때보다, 교육

---

으로 하여 전·후에 지속시간을 두고 연결되는데 반해, 일본어의 (saN)은 /sa/에 /N/이 부가되는 구조이다.

14) 우메다(梅田博之, 1983) 141～143면.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속시간은 음절의 경우나 문장의 경우나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상당히 길다.

용 가나표기가 부기된 한국어 단어를 읽을 때, 학습자들의 종성 길이가 짧을 것이다. 둘째, 관용표기를 통한 '읽기'와 교육용 가나표기를 통한 '읽기' 실험에서 개별적인 학습자들은 일정한 일반성을 보일 것이다.[15]세째 교육용 가나표기를 통한 '읽기'에서 발음 길이는 한국인 화자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다. 넷째 남·녀 화자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Ⅳ. 1 표기법에 따른 발화 길이 비교

<표 4>와 같은 한국어 단어를 제시하여 일본어 모어 화자의 종성 발화 길이를 측정하였다. 실험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4> 관용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로 2음절 단어 읽기[16]

| 단어 | A | B |
|---|---|---|
| 술래 | スルレ | スルレ |
| 돌담 | トルダム | トルダム |
| 달력 | タルリョク | タルリョク |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교육용 가나표기를 이용하였을 때의 한국어 종성 발화 효과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에 유학 온 학생 10명(남5, 여5)을 대상으로 읽기 실험을 하였다.[17]

15)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숙제'를 0.5초 동안 발음했다면, b라는 학생도 같은 단어를 비슷한 길이로 발음할 것이다.

16) 실험A: 관용표기로 읽기, 실험B: 교육용 가나표기로 읽기.

17) 한국어 연수 기간: 2008년 6월 25일~8월 31일, 장소: 전북대학교 기숙사

분석에 사용된 8개 항목의 실험 대상 단어는 폐쇄음계열의 세 한국어 종성 음소가 들어간 장음절 중에서도 피험자인 일본어 모어 화자가 발화시 쉽게 간섭현상이 예측되는 예어들로 선정하였다. 또한 뒤 음절의 영향을 받아 발화되는 일본어 특수음소 /Q/의 변이음 특성을 한국어 종성 음소 발화시 적용하여 간섭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2음절 단어를 선정하였다. 실험A에는 관용표기가 부기되어 있다. 같은 피험자에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실험B에서 교육용 가나표기가 부기되어 있는 동일한 단어 8개의 순서를 재배치하여 다시 읽게 하였다.

실험A와 실험B에서 일본어 화자들의 발화를 녹음한 후, 음성 분석기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험자의 한국어 종성 발화시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음성 분석기와 음성 분석 프로그램은 Sony Sound Forge 7.0과 Praat 4.6.32이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녹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녹음 시 소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음절 길이를 측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각 음절의 모음 사이 길이를 측정하여 피험자의 한국어 종성 발화에 변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1음절 모음 끝과 2음절 모음 시작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모음은 일정한 포먼트 주파수를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에도 비교적 변별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남성 화자의 모음 사이 길이 ‘A’와 ‘B’를 비교했을 때, 남성 화자의 경우 ‘0.01～0.6’씩 길이가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건물, 시간: 12:00～18:00, 연령: 20～55세, <피험자 명단>성별(여) 1. 아유미, 2. 미우라, 3. 유키, 4. 기쿠찌, 5. 스즈키, 성별(남) 1. 후지타, 2. 요네무라 3. 사토, 4. 아오모리 5. 가타노, 관용어표기 측정일시: 7월2일～5일, 교육용 가나표기 측정일시: 8월 2일～5일.

<표 5> 남성 화자의 경우

| 제시 단어 | 남학생 1 | | | 남학생 2 | | | 남학생 3 | | |
|---|---|---|---|---|---|---|---|---|---|
| | A | B | 차 | A | B | 차 | A | B | 차 |
| 달력 | 0.4763 | 0.1774 | 0.2989 | 0.3043 | 0.1914 | 0.1129 | 0.2428 | 0.2107 | 0.0321 |
| 돌담 | 0.3229 | 0.1107 | 0.2122 | 0.2658 | 0.2428 | 0.023 | 0.2119 | 0.1674 | 0.0445 |
| 술래 | 0.4941 | 0.2052 | 0.2889 | 0.3393 | 0.2323 | 0.107 | 0.2502 | 0.2203 | 0.0299 |

| 제시 단어 | 남학생 4 | | | 남학생 5 | | |
|---|---|---|---|---|---|---|
| | A | B | 차 | A | B | 차 |
| 달력 | 0.1751 | 0.1347 | 0.0404 | 0.1851 | 0.1473 | 0.0378 |
| 돌담 | 0.1682 | 0.1475 | 0.0207 | 0.1777 | 0.1719 | 0.0058 |
| 술래 | 0.1922 | 0.1672 | 0.025 | 0.2502 | 0.1976 | 0.0526 |

<표 6> 여성 화자의 경우

| 제시 단어 | 여학생 1 | | | 여학생 2 | | | 여학생 3 | | |
|---|---|---|---|---|---|---|---|---|---|
| | A | B | 차 | A | B | 차 | A | B | 차 |
| 달력 | 0.3079 | 0.2149 | 0.093 | 0.2683 | 0.2197 | 0.0486 | 0.4269 | 0.2304 | 0.1965 |
| 돌담 | 0.1914 | 0.1386 | 0.0528 | 0.1996 | 0.1877 | 0.0119 | 0.2781 | 0.2167 | 0.0614 |
| 술래 | | | 0 | 0.2484 | 0.2382 | 0.0102 | 0.3467 | 0.2577 | 0.089 |

| 제시 단어 | 여학생 4 | | | 여학생 5 | | |
|---|---|---|---|---|---|---|
| | A | B | 차 | A | B | 차 |
| 달력 | 0.4531 | 0.3002 | 0.1529 | 0.2765 | 0.1651 | 0.1114 |
| 돌담 | 0.3669 | 0.2105 | 0.1564 | 0.2641 | 0.2516 | 0.0125 |
| 술래 | 0.3547 | 0.2607 | 0.094 | 0.2673 | 0.2009 | 0.0664 |

<표 6>에서 여성 화자의 모음 사이 길이 'A'와 'B'를 비교했을 때, 피실험자 다수(3명)가 0.4초대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화자의 경우 '0.01~0.9'씩 길이가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화자의 경우에는 실험 집단에서 일반성이 포착되지 않았

다. 즉 개인차가 크다. 이는 실험 집단이 소규모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험 집단을 대규모로 설정하면 할수록 일반성을 더욱 잘 포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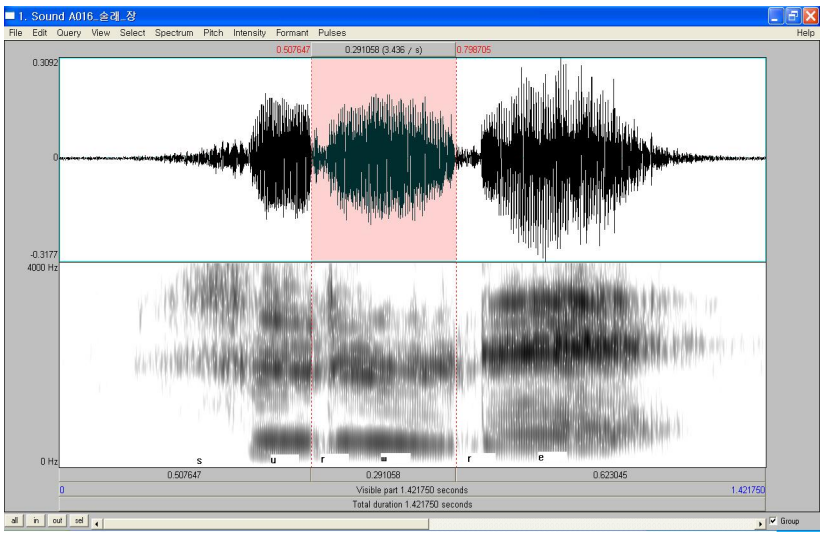
한국인이 발화하는 음절 길이와 일본인이 발화하는 음절 길이에 일반성이 있다는 가정(본문 Ⅲ. 교육용 가나표기를 이용한 한국어 폐쇄음계열의 종성 발음 효과)하에 (Ⅳ.1. 음성분석기를 통한 비교 실험)을 설정하였으나, (Ⅲ)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Ⅳ.1)도 자동적으로 충족되지 못하였다. 결국, (Ⅲ, Ⅳ.1)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이 더 많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차가 심한 것은, 실험집단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어 모어 화자들이 녹음을 의식하여 긴장 혹은 과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실험의 의의를 찾는다면, 관용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에 분명한 차이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표 5, 6>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다음의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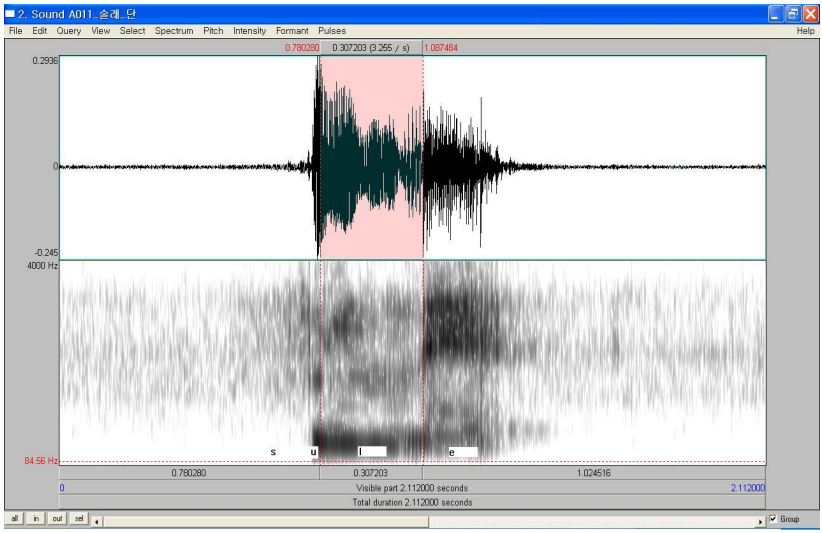
## Ⅳ. 2 표기법에 따른 발화 상태 비교

다음 <그림 1>의 점선 사이에서 일정한 포먼트가 포착되는 것으로 보아 '술래'가 [sule]가 아닌 [surure]로 발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의 스팩트로그램과 달리, <그림 2>에서는 '술래'의 「ㄹ」 다음에 모음의 포먼트가 포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관용표기 발화 '술래'[surɯre]




<그림 2> 교육용 가나표기 발화 '술래'[sule]

교육용 가나표기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용 가나표기의 전·후 상태를 비교 실험한 자료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표기 발현의 첫음절 종성 길이가 교육용 가나표기 발현 때 보다 길게 나타났다. 둘째, 관용표기 발현의 첫음절 종성에는 모음이 삽입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났다.

Ⅳ에서는 Ⅲ에서 제시한 교육 방안이 실제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 향상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두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였다. 첫째, 외래어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가 부기된 한국어 장음절의 모음 사이 길이를 각각 측정하였다. 외래어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의 포먼트 주파수 차를 비교한 결과, 피험자의 종성 발음이 짧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외래어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가 부기된 단어의 발화 상태를 스펙트로그램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용 가나표기를 이용한 한국어 종성 발음 수업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오류율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 종성 발음 지각 시, 부기된 교육용 가나표기가 일본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종성 발음 향상에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 Ⅴ. 맺는 말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교재에는 가나표기 형태의 발음표기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큰 장애가 되는 발음 향상을 위해 일본어 모어 화자에게 익숙한 발음표기를 일본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학습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종성 발음 학습에 발음표기를 이용하고자 한국어 폐쇄음계열의 3종성 음소에 대한 교육용 가나표기를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가나표기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교재 분석을 통하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고에서는 한국어 유음계열의 종성 음소에 부기하던 기존의 대「ル」를 대신하여 교육용 가나표기 형태인 작은「ル」를 제안하여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향후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일본에서 가타카나로 외국어 발음을 발음 표기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이 편의로 쓰는 것이니까 학문적인 가치가 없다고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처럼 교육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하나의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분명해진다. 또한 기초・초급단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문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국어에 적합한 가나표기법을 개발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발음 표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언어권의 언어로도 100%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표기법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음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어 발음을 표기하는 수단으로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 과제는 교육용 가나표기를 이용한 수업의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교육 방안을 수정, 보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종성 분야뿐만 아니라 한글자・모음의 발음에 대한 교육용 가나표기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자료

일본방송출판협회,『NHKテレビハングル講座教材』, 1996～2007.
일본방송출판협회,『NHKラジオハングル講座教材』, 1992～2007.
鄭喜盛,『한국어 회화1』, EM外語研究所, 1980.
菅野裕臣,『朝鮮語を学ぼう』, 三修社, 1987.
日本語教育学会編,『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大修館書店, 1990.
石井真二,『ハングルの練習問題』, JICC出版局, 1993.
新潟韓国学院,『教育院の綜合的な韓国語』, 新潟韓国学院出版部, 1993.
野間秀樹,『至福の朝鮮語』, 朝日出版社, 2002.
金井孝利,『美しき日々で始める韓国語－シナリオ対訳集－』, 旬報社, 2004.
安岡明子,『冬のソナタで始める韓国語－シナリオ対訳集－』, 旬報社, 2004.
□

### 논저

고성중,「한국어 학습에 있어서의 일본어의 간섭에 대하여」, 연구논총8, 서울대재외국민교육원, 1992.
고영근,「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언어교육 6-1, 1974.
_____,『로마자 표기안 집성』「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 1985.
_____,『한국의 언어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1.
공일주,「일본인의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한글 제5호, 한글학회, 2001.
국립국어연구소,『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研究と日本語教育』, 2002.
권현주,「일본어 가나표기의 변화양상에 관한 고찰」 일본어문학 제2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a.
_____,「일본어의 음장(length)을 이용한 한국어 종성 발음 인지 교육 방안」, 일어일문학 제5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2006b.
_____,「특수음소의 변이음을 이용한 한국어 종성 발음 인지 교육방안」, 일본어문학 제31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c.

_____, 「NHK 한국어 강좌 교재의 발음표기에 대한 실태 분석－종성 발음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권현주・왕희자,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수법』, 삶과 꿈, 2008.
박경자 외, 『언어교수학』, 형설출판사, 1994.
우메다(梅田博之), 「최근 일본에서의 한일 대조 언어학의 동향」,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 2004.
일본어교육학회편, 『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大修館書店, 1990.
칸노(菅野俗臣),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수방법」, 새국어생활 제1권 제2호, 1991.
후지모토(藤本幸夫),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 현황」,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1993.
후지무라(藤村靖), 『音声科学』, 東京大学 出版会, 1972.

이 논문은 2009년 6월 30일에 투고되어 2009년 8월 15일에 심사 완료하였으며, 2009년 8월 2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국문초록>

#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유음계열 종성의 지각과 조음

## - 관용표기와 교육용 가나표기의 음장 비교 실험 -

권 현 주

본 소고에서는 종성에서 박(拍:mora)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종성과 박(拍:mora)으로 존재하는 일본어와의 음장 차이를 발음 표기 방안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발음 표기로는 유음계열의 한국어 종성 음소에 교육용 가나(kana)표기를 제시하여 관용표기와의 발화시, 음장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관찰한 결과 한국어 종성 발음 능력 향상에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관용표기, 교육용가나표기, 종성, 음장, 유음

<Abstract>

# Focused on Recognition and Calculation of Japanese Native Speakers on liquid Sounds of Coda Korean Language

## - Study on Comparison of Educational Kana Transcription with Foreign Word Transcription -

Kwon, Hyun-ju

Japanese learners are faster than other language speakers to learn words, grammars and expressions of Korean language. Meanwhile, there are not a few learners whose pronunciations are not improv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practice for a while but affect their communication skills in a negative way. Considering the first goal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phonetic education which is the primary tool for actual communication is essential.

Since texts published in Korea for Korean language do not include explanations or instructions on prosodeme, the unnatural pronunciation of Japanese native speakers who learn Korean language is not fixed although they practice it for a while. Among the pronunciation problems, length of Korean language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factors that Japa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face. Specifically, it causes big difficulty when they pronounce the ending sound. Korean language has length as prosodume in most vowels and a few consonants but they are not activated distinctive features. Meanwhile,

Japanese language has it in vowels as phoneme and in coda as 拍 (mora), which are distinctive feature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solution of pronunciation transcription to length difference between Japanese language that has 拍 (mora) in coda and Korean counterpart that does not. For pronunciation transcription, educational Kana transcription that is suitable to liquid ending words of Korean language is used to compare it with the existing foreign language transcription and its length. The results of this text a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at test, Kana transcription helps improve learners' pronunciation skills for Korean ending words.

**key words:** Foreign Word Transcription, Educational Kana Transcription, Coda, length, liquid sounds